100세 시대 '해조류 힐링 대성찬' 준비 이상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D-45… 성공 개최 박차

주제관·해조류체험관 공사 순조
'전복해조류 비빔밥' 개발 시식회

자원봉사자 등 참여 성공다짐대회
후원금 기탁·입장권 구매 약정도

인류의 미래 대체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시·연출·체험을 통해 보여주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막이 45일 앞으로 다가왔다.

완도군은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바다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 2012년 11월 7일 조직위원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나선 군은 막바지 개최준비에 한창이다.

◇해조류 무한 발전 가능성 제시=4000장의 유리벽으로 꾸며지는 박람회 주제관은 이달 말 완공 예정이다. 완도항 해변공원 물양장에 주제관과 비상설 전시관 4개동, 체험시설 4개소가 설치된다.

4층 규모의 주제관은 다음달부터 실내 전시·체험 시설물이 설치된다. 박람회 주제 영상물과 해조류 에너지 체험관으로 구성한다. 박람회 개최 후에는 해조류 체험과 판매장, 해외수출 상담 공간으로 이용한다.

생태환경관, 건강식품관, 산업자원관, 해조류기업관 등 비상설 전시관 공사도 한창이다. 1000여㎡ 규모로 해상에 만들고 있는 해조류 체험장도 순조롭게 설치되고 있다. 주제관, 전시관 전시 컨텐츠 대부분의 시설물은 다음달까지 설치 완료한다.

군은 해조류 박람회를 최고의 식품 안전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다.

관람객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업무협약을 한 데 이어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람회 기간 집중 지도 계몽을 한다. 군내 79개 업소가 음식 덜어먹기, 해조류 밑반찬 올리기 등을 적극 실천한다. 음식요금 할인 업소도 100곳에 이른다.

원활한 차량 흐름과 주차장 확보가 박람회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판단하에 자가용 안 타기, 주차공간 양보하기 등 범 군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관람객이 몰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소도 인근 해남·강진군 등과 공동 수용하기로 업무협약을 끝냈다.

군은 완도산 전복, 꼬시래기, 다시마 등을 재료로 한 '전복해조류 비빔밥'을 개발해 시식회를 끝냈다. 일본 특허 제품인 녹지 않는 해조류 아이스크림 제조기술도 배워 공무원들이 익히고 있다. 박람회 기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눈과 입이 즐거운 박람회=완도군은 해조류박람회를 통해 해조류산업 발전과 완도 브랜드 가치향상 등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해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재경 향우회장단과 자원봉사자, 행사운영요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다짐 대회를 가졌다.

개그맨 고명환(완도 다시마면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박람회준비 추진사항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입장권 구매약정 체결 순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과 보해양조주식회사는 해조류박람회 성공을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입장객 유치와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금일수협 4000만원, 완도전복 주식회사는 1000만원을 박람회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목포대는 지난해 11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실천을 위해 박람회 입장권 3000매를 구매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또 2014년을 '고향 방문의 해'로 정한 재경 완도군 향우회가 입장권 8000매, 대구 섬여행사가 5000매, (주)이즈피엠피가 3000매를 사전예매하기로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김종식 군수(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는 "해조류박람회는 인류 미래 대체자원으로 부상하는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며 "건강 100세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눈과 입이 즐거운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재경 완도군 향우회장단과 자원봉사자, 행사운영요원들이 지난 21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목포대 간호학과 2년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

지난 2009년 신설된 목포대학교 간호학과가 2년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과 취업에 성공해 화제다.

목포대는 "졸업생을 첫 배출한 2013년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행된 '제5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간호학과 제2회 졸업예정자 44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졸업생은 간호사 시험 합격과 동시에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로 전원 채용됐다.

올해 2회 졸업생의 진로는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고려대 병원, 을지대 병원, 전남대학병원 등 대학병원 28명 ▲서울 경기·경남·목포 등 종합병원 15명 ▲육군장교 1명으로 나타났다.

류세앙 간호학과장은 "2년 연속 100%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 확정이라는 성과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 학교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삼위일체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다양한 임상 실습교육 및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등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비 70% 조기집행

농어촌公 무안·신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박종호)가 올해 지역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조기집행에 나선다.

무안·신안지사는 올 예산 128억원의 120% 수준인 154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이 가운데 사업비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지사는 지난해의 경우 신안에 ▲쌀 전업농 및 2030세대 농지규모 확대(112ha·31억원) ▲경영회생 자금지원 12억원 ▲농지연금 1억원 ▲경영이양 보조금 4억원 ▲농지매입 비축사업 7억원 등에 사업비 55억원(총 156농가)을 지원했다.

또 무안에는 ▲쌀전업농 및 2030세대 농지규모확대(165ha·72억원) ▲경영회생 자금지원 33억원 ▲농지연금 1억6000만원 ▲경영이양 보조금 11억원 ▲농지매입 비축사업 31억원 등 148억여원(223농가)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박종호 지사장은 "다음달 중에 관내 쌀 전업농과 운영 대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농·어업인들의 농지은행 사업 참여율 확대와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북

고창·부안 AI 방역대 내일부터 해제

임실방역대 내달 6일 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고창과 부안지역에 설치됐던 1~4차 방역대가 26일부터 해제된다.

임실지역의 방역대도 인근의 추가 발병이 없는 한 다음달 6일부터 해제된다.

전북도는 "고창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설치한 방역대를 26일부터 차례로 풀어 일반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고창·부안·임실 등 5개 시·군에 12개소의 방역대가 구축돼 있다. 방역대 해제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사료와 가축이동 등 차량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하지만 이들 농장은 일반지역으로 전환 한 후 41일이 경과한 뒤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만 입식을 할수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순창, 귀농·귀촌인 모시기 나섰다

신문·방송 등 언론 홍보
지원센터 전문교육 실시

순창군이 올해 350가구 7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키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순창군은 포털사이트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인구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홍보에 전념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풍산면에 개소한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는 연중 단기, 중·장기 교육 등 전문적인 상담을 벌인다.

다음달부터 예비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등 510명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할 계획이다.

특화작목인 10대 작목을 중심으로 재배, 유통, 농산물 가공교육을 하게 된다. 난로·화덕·태양광 등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활용기술과 생태건축 교육 등도 병행해 실시한다.

귀농귀촌인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go-sunchang.com)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063-650-5115), 귀농귀촌지원센터(063-653-5421)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김민영 정읍 산림조합장 중앙회 비상임 감사에

김민영〈사진〉 정읍 산림조합장이 최근 열린 산림조합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비상임 감사에 당선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회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편 정읍 산림조합은 지난해 결산결과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산림조합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에도 신용사업부문 전국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산림조합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서 인문학 르네상스 이루자"

市·평생학습센터, '유쾌한 인문학 강좌' 마련

"전주에서 '인문학 르네상스'를 이루자."

전주시와 전주 평생학습센터가 3월부터 12월까지 인후3동 주민센터에서 '인문학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유쾌한 인문학 강좌'(총 35강좌)를 마련한다.

지난해 '한국의 인문정신'에 이어지는 올해 인문학 강좌 주제는 범위를 넓힌 '동아시아의 인문정신'이다. 인문강의와 인문강의와 콘서트를 겸하는 토크 콘서트, 특별강좌도 준비하고 있다.

강좌는 크게 ▲동아시아의 고대사(3~ 4월) ▲동아시아의 근·현대사(5~6월) ▲동아시아의 사상(7~ 8월) ▲동아시아의 문학(9~10월) ▲동아시아의 예술(11~12월) 등 5개 대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첫 주제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고대사'는 이희진 한국항공대 외래교수와 김성규 전북대 사학과 교수를 초빙해 ▲문명과 역사의 시작(구석기~광무제 즉위) ▲고대사회의 혼란과 붕괴(발해건국~신라멸망)▲중국 최고의 명군과 제왕학의 교과서(당 태종과 정관정요) 등 심도 있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강좌 모집인원은 100명(선착순)이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원(답사비 별도)이며, 고교생과 대학생은 50% 감면된다. 문의(063-241-1123)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화와 고전, 역사와 철학 등을 주제로 지속적인 인문강좌를 추진해왔고, 노래와 연주가 곁들여진 인문 토크 콘서트도 매년 2회씩 열어왔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변산바람꽃 '활짝'

봄을 알리는 '변산바람꽃'이 국립공원 내장산 기슭에 꽃잎을 피웠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올해 야생화 테마 관찰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단신

전주시, 산불방지 비상근무 돌입

전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청명·한식, 어린이날 등 연휴에 대비해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8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주요 산 정상과 산불취약지, 이동 감시소 등에 매일 120여명을 배치키로 했다. 또 산불 발생 때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 등 11대를 대기하도록 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의 이 같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코레일 전북본부·순창군 등과 협약

남원시는 수도권 코레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4일 코레일 전북본부, 순창군, 한국관광공사 전북권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시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정기열차(KTX)와 임시열차를 통해 관광자원과 재래시장, 상설 공연 등과 연계한 철도관광 개발에 상호 유기적인 공동마케팅 구축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또한 남원시와 순창군·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은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코레일 패키지상품 공동구성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농기센터, 단풍미인 대학 수강생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단풍미인 대학' 수강생 70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미인대학은 '토마토 과정'과 '농업경영 마케팅 과정'으로 나눠 11월까지 각 과정별로 15회 이상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토마토 과정'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 정립에, '농업경영 마케팅과정'은 유통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문의(063-539-6261)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학교 수료식

고창군과 정읍시는 지난 24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2014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지역창안 학교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공동체 조직·운영, 로드맵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공동체 기초교육 과정으로,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 대회의 첫 관문이다.

86개팀 260여명이 참여한 지역창안 학교는 지난 10일 입교식 후 총 5회에 걸쳐 이론교육, 실습 및 컨설팅, 현장교육 등 15강좌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